

##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개념과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하 선 정\* · 정 미 경\*\*

경북 모서초등학교\* · 대구교육대학교\*\*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Clothing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Ha, Sun-Jung\* · Chung, Mee-Kyung\*\*

*kyingpook moseo Elementary School\**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clothing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For this purpose, 301 third and sixth graders two schools in Daegu-city were sampled. The 'Test of Self-Concept' and 'Questionnaire on the Clothing Behavior' were administered purpose of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PC Windows programs according to the research issue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were calculated and a three-way analysis of variance was applied to analyze the effects of grades, sex(gender), and self-concept on the clothing behavior.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It was found that the mean score of the clothing behavio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the level of self-concept (group). The mean scores of manageability, psychological dependency, interest, and conformity of the high self-concept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low self-concept group.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high and low self-concept groups in the mean score of conformity.

2.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sex of children in the mean score of the clothing behavior. It was found that the mean score of manageability, psychological dependency, and interest of the femal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male students. However the mean score of the comfortability of male stud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female students. In the meantim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ex of students in the mean score of conformity.

3.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ean score of the cloth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grades of children. It was found that the mean scores of manageability, psychological dependency, interest, and comfortability of the third grader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ose that of the sixth grader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the grades of students in the mean score of conformity.

4.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sex and the grade of children on the mean score of interest and comfortability. It was found that the mean score of interest of male third graders was higher than that of male sixth graders. The mean score of comfortability of the female third graders higher than that of sixth graders.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의복이 인간행동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중요하지만 특히 아동기에 있어 의복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김연주, 1992). 중세까지만 해도 아동의 의복은 성인의 축소판으로 아동의 연령과 문화에 따른 아동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으나,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 혹은 자연의 일부로 보는 자연주의적 아동관을 제창한 Rousseau 이래 근대적 아동관이 정립됨에 따라 의복이 아동의 행동 및 성격발달에 큰 영향을 미침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Kaiser, 1983).

학령기는 왕성한 신체발달과 함께 사회적·도덕적 발달 및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Kelly, 1970). 자아개념이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갖는 관점의 총합으로서 자신에 대해서 갖게 되는 지각, 생각 및 태도의 독특한 형태를 일컫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타인과의 심리적인 관계 즉 한 개인이 그가 처해있는 생활의 장에서 자신과 주변환경에 대해서 느끼는 지각이나 개념이다(정영순, 1997). 여러 연구자들(변기혜, 1982; 김원숙, 1983; 심현섭, 1991; 김연주, 1992 등)에 의하면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자아개념은 의복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도 의복행동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흥미성, 관리성,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등이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안락성이 높

게 나타난다고 하였다(고은기, 1986; 원선주, 1989; 김연주, 1992; 이강선, 1992). 그리고, 동조성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김연주, 1992).

학년이 따라서도 의복행동은 차이를 나타내는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개성을 찾게 된다. 이에 의복은 자신을 표현하기에 가장 손쉬운 도구 중의 하나로 학년에 따라 그 의복행동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의 의복행동에는 자아개념과 성별, 학년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자아개념, 성별, 학년에 따라 의복행동에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동의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자아개념, 성별, 학년의 상호작용효과를 본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더욱이, 이러한 연구는 80년대 중반에 집중되어 있어, 오늘날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변화가 큰 오늘날, 다양한 의복행동의 이해는 아동을 이해하는데 보다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러나, 요즘 아동들의 의복행동을 나타내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라서 아동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본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개념, 성별, 학년별 모든 변인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아동을 이해하고 의생활을 지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목표는 다음

과 같다.

- 가. 자아개념에 따른 아동의 의복행동 차이를 알아본다.
- 나. 성별에 따른 아동의 의복행동 차이를 알아본다.
- 다. 학년에 따른 아동의 의복행동 차이를 알아본다.
- 라. 아동의 자아개념, 성별, 학년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본다.

###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대구 시내 일부 초등학교 3,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조사연구의 내용을 분석·정리하였고, 조사 연구가 학년말에 이루어져 3학년 아동을 정확히 저학년으로 구분 짓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이 연구결과를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아동의 자아개념

자아개념은 1890년 James가 처음으로 인간의 성격을 논하는데 사용하였다. James(1918)는 자아를 '경험적인 자아(empirical self)', 즉 '나의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지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원식(1968)은 "한 개인이 그가 처해있는 생활의 장에서 자기 자신 및 그의 주변환경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그 구성요소로서 자아 동일성, 자아수용성, 자아행동을 하위영역으로 하는 내적 자아준거 체제와 신체적 자아, 도덕적 자아, 성격적 자아, 사회적 자아, 가정적 자아를 하위 영역으로 하는 외적 자아준거 체제로 나누었다.

초등학교 아동들은 또래들과 같이 놀이를 하며 공동 작업을 통해서 상호 접촉하게 되고, 서로 이해하며 자기 존재를 자각하고 독자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시기의 아동들은 지적발달이 왕성해지며, 특히, 사회성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교우관계를 형성한다(장원덕, 1999).

황지현(1998)은 남녀간의 자아개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저학년 아동들이 고학년 아동들보다 자아개념이 높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개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쟁적이고 통제적이며 일관성이 결여된 일상생활을 거듭하게 되므로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부정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되고 학업성취 면에서도 자신감이 점차 결여되고 이상성, 도덕성, 성격에 관한 지각, 신체적 기능에 대한 지각 등에 부정적 사고가 점차 증가되어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김윤하(1999) 역시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아개념이 낮아지고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전체적으로 자아개념이 높다고 하였다. 다만, 신체적 자아개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개념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아개념이 높으나 신체적 자아개념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아동의 의복행동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의복과 함께 생활하게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그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의복행동이란 의복에 대한 태도, 흥미, 관심, 인식, 선택 및 착용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Rosencranz, 1965), 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인 연구는 20C초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행동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장기숙, 1984 재인용). 아동기는 6, 7세에서 12, 14세의 시기로 초등학교 재학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이 시기는 아동이 취학하게 되어 생활의 장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어 의복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아동은 취학 전에 비해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의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아동의 의복행동 중 흥미성에 관하여 보면, Tate(1967)는 10-12세의 아동들은 이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이성에 대한 흥미는 그들의 의복습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아동들은 성별에 차이를 보여 개인적인 외모에 있어 여자어린이들은 남자어린이들보다 더 관심이 많아 의복착용의 지속적인 향상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미연(1992)은 여아의 의복이 남아의 의복보다 덜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남아보다 여아는 어린 시절부터 외모가 돋보이는 의복에 더욱 흥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강혜원, 김혜경(1987)은 아동은 동성과의 놀이에 대한 흥미가 증가하면서 의

양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의복에 대한 흥미가 점차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의복이 욕구를 만족시켜 줄수록 의복에 대한 흥미가 커진다고 하였다.

아동의 의복행동 중 안락성에 관하여 보면, 학령기 아동은 신체적 활동이 많아지고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시기의 아동들은 편안한 옷을 선호하게 된다. Hurlock(1960)은 어린이는 편한 옷을 좋아하며, 많은 성인이나 청소년들은 멋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견디어 내지만, 어린이에게는 그와 같은 참을성이 없으며, 어린이들은 단지 활동하기 편리하고 자유로운 의복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특히, Ryan(1966)에 의하면 10-12세의 남자어린이들은 간단한 디자인의 질긴 옷을 좋아하며, 꼭 끼는 옷은 활동에 불편하므로 싫어한다고 하였다. 이미연(1989)도 남아가 여아보다 끼는 듯한, 입고 벗기에 불편한 옷과 촉감이 걸쭉하거나 뻣뻣한 옷감으로 만들어진 의복을 싫어한다고 하였다.

아동의 의복행동 중 관리성에 관하여 보면, Hurlock(1960)은 5학년 여자어린이들의 경우 저학년이나 남자어린이들보다 그들의 외형이나 옷차림에 신경을 쓰게 되며, 청결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남자어린이들은 여전히 단정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Gesell과 Ilg은 연령계층별 연구에서 9세 아동은 의복의 깨끗함이나 정돈에는 관심이 없고 10세가 되어도 의복관리에는 부주의하여 더러워도 상관치 않는다고 하였다. 의복 선택 시에 10세에는 대부분 자신의 그 날 입을 옷을 선택하고 어머니는 검사하는 정도이며 11세에는 매일 옷 선택에서 반 정도는 스스로 하고 나머지 반은 무엇을 입을 것인가를 묻는다고 함으로써 학령기 후기에 의복선택과 관련된 자립성이 발달됨을 지적하였다(이영희, 1986 재인용). Tate(1967)는 6세까지의 아동은 어머니가 사준 옷에 대해 만족하지만 남자어린이는 12세, 여자어린이는 6-12세 사이에 그들이 입고 싶은 옷과 입기 싫은 옷을 표현하며, 12세의 여자어린이는 의복선택의 자유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은 대부분 자기 의복을 좋아한다고 하였으며, 의복에 대한 불만은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하였다.

아동의 의복행동 중 동조성에 관하여 보면, 아동기는 신체의 성장, 능력의 향상 및 관심의 증가, 사회성의 발달 등 아동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로 사회성이 급격히 발달한다. 의복은 아동의 사회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아동은 동료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소속감을 얻는다. 이 소속감은 아동복의 필요와 요구에 영향을 미쳐 집단내의 활동성 있는 동료들의 의복, 행동, 언어를 모방함으로써 안정감을 얻게 된다. 반면 아동 자신의 의복과 동료집단과 동조성을 이루지 못할 경우 자의식과 열등감을 강화시켜 비사회적이 되게 한다(고은기, 1986). Tate(1967)는 학령기 아동은 자신의 옷이 그가 속하고 있는 집단의 스타일과 일치하기를 원하며, 그 집단의 의복이나 행동 등을 모방함으로써 안정감을 얻고자 한다고 하였다. Rayn(1966)도 학령기 아동은 집단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되며, 의복으로서 동료집단에 수용되길 원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연령이 증가될수록 많아지며 의복의 동조성은 만족불만족을 나타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미연(1989)은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의복에 있어 또래 집단의 영향에 더 동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10세-11세 이후의 아동들은 이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독자적인 의복행동을 보이며 집단 내의 소속감과 동시에 타인과 구별되려는 의식으로 개성있는 의복을 착용한다는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아동의 의복행동 중 심리적 의존성에 관하여 보면, Hurlock(1960)은 어린이는 자신의 옷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존경을 받고 싶어하며, 이러한 느낌은 어린이에게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불어 넣어주며, 특히 다른 어린이들이 그것을 모방할 때 그러한 기분은 더욱 든다고 하였다. 김연주(1992)는 여자 아동들이 남자아동들 보다 의복행동에서 심리적 의존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

Miller와 Ryan(1960)은 만족스럽지 못한 의복은 심리적으로 상실감을 갖게 하며 자신감을 잃게 되는데 이는 행동에도 반영되어 사회참여를 낮아지게 함을 지적하면서 의생활태도에서 만족성을 특히 중요시하였다.

### 3. 자아개념과 의복행동

자아개념은 인간이 행동하는데 있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인간의 의복행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Ryan(1966)은 의복과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의복은 자아개념의 형성에 기여하며 자아개념은 개인의 의복선택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경손(1997)은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은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Vener와 Hoffer (1965)는 자아수용성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에 모순이 없어 자기의 의복에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주로 의복을 착용하였고, 조직내의 참가도도 높다고 하였다. Moothart의 연구에서도 의복에 대해 관심이 적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심현섭, 1991 재인용). Hurlock(1964)은 아동은 의복의 상징성을 인식하며, 신체적 매력같이 사회적 승인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의복의 가치는 더욱 중요하게 되어 선호의복 착용시 정서안정과 자아존중감에 높은 기여를 한다고 하였다.

임춘봉(1978)은 특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의 의복행동의 특정한 측면에 반영된다고 했으며, 특히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에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신체적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이 의복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긍정적 상관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Drake와 Ford(1979)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학생일수록 낮은 여학생보다 의복에 대한 흥미가 높다고 하였고, Creekmore(1971)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의복을 통해 자신에게 주의가 집중되는 것을 꺼리지 않았으며, 의복비가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가져와 외형 만족이 성격형성에 영향을 줄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이나 혹은 외형에 만족하는 청소년은 특별한 옷이나 두드러진 외모로 주의를 끌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김순구(1985)는 자아존중감은 의복행동 중 신체적 안락감과 정숙성과는 무관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의 심미성과 관리성은 높아지고 흥미성, 심리적 의존성, 사회적 승인, 주의 집중성은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고은기(1986)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관리성과 자립성이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동조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개념에 따른 의복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아개념의 점수에 따라 긍정적 집단, 부정적 집단, 중간 집단으로 구분하여 의복행동을 살펴본 김연주(1992)의 연구에서 자아개념의 크기에 따라 심리적 의존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동조성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일수록 의복에 있어서 동조성은 약하게 나타났다. 그는 도덕적 자아, 사회적 자아, 자신감

의 점수가 낮을수록 의복행동에서 동조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상을 살펴보면,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의복행동의 심미성, 관리성은 높고, 동조성은 낮으며, 흥미성은 높다는 의견과 낮다는 의견이 공존하며, 심리적 의존성은 대체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4. 성별과 의복행동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남녀의 의복은 뚜렷이 구분되어 왔다. 속옷에서부터 겉옷에 이르기까지, 신발, 악세사리 등 남과 여의 의복은 모양과 종류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성에 따라 의복이 달라짐에 따라 남과 여의 의복행동에도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는 주로 편리성과 간편성위주의 의복을 선호하는 반면 여자는 의복의 미적 감각을 추구하는 편이다. Roach(1965)는 의복은 연령보다 성에 의해서 더 확연히 구분되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복은 신체적인 매력을 과시하고 자신을 타인, 특히 이성에게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에서 제기된 것이라 하였다(김선화, 1985 재인용).

이미연(1992)은 여아의 의복이 남아의 의복보다 덜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남아보다 여아는 어린 시절부터 외모가 돋보이는 의복에 더욱 흥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강선(1992)은 남아보다 여아가 흥미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자기 자신의 외모를 인식하면서 옷차림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남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의복행동 점수가 비슷하였으나 여아의 경우는 6-9세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9세에서 12세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의생활태도 점수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옷차림에 관심을 보이고 스스로 선택하여 입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아가 남아보다 의복의 청결 및 단정함은 물론 의복 정리에도 관심을 쏟기 때문에 여아가 남아보다 관리성이 높다고 하였다. 박옥련(1984)도 여아가 남아보다 관리성이 더 높았으며, 여아의 경우 사려성이 높은 아동이 더 높은 관리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Hurlock(1960)은 5학년 여자어린이들의 경우 저학년이나 남자어린이들보다 그들의 외형이나 옷차림에 신경을 쓰게 되며, 청결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남자어린이들은 여전히 단정하지 못하다고 하였

다. 이미연(1989)은 여아는 어머니나 다른 사람이 골라주는 옷을 싫다고 고집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일 입을 옷을 스스로 선택하고, 바깥 날씨에 따라 적당한 의복을 골라 입기 때문에 여아에게 자립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Ryan(1966)은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그는 여학생들은 타인에 의해 평가될 자신의 모습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의복을 통해 자신감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김연주(1992)는 여자아동들이 남자아동들보다 의복행동에서 심리적 의존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동조성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연(1989)은 초등학교 1,2,3학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의복에 있어 또래 집단의 영향에 더 동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여자 어린이가 남자 어린이에 비해 흥미성, 관리성, 심리적 의존성은 높게 나타나고 안락성은 남자어린이가 여자 어린이에 비해 더 높으나 동조성에 있어서는 여자어린이가 높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5. 학년과 의복행동

Hurlock(1956)은 초등학교 시기의 어린이는 자신의 옷이 그가 속하고 있는 집단의 스타일과 일치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옷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존경을 받고 싶어하며 편한 옷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먼저 학년에 따라 흥미성의 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10-12세의 아동들은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이성에 대한 흥미는 그들의 의생활에 영향을 준다. 아동들은 성별에 차이를 보여 여아들은 개인적인 외모에 있어 남아보다 더 관심이 많아 의복 착용의 지속적인 향상을 보여 준다(이미숙, 1984). Hambleton(1972)와 Tate(1961)은 11, 12세에서 의복의 흥미성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이 때가 되면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의복행동에 대한 흥미도 높아지기 때문이다(이강선, 1992). 이미연(1989)은 남아의 경우 1, 2학년 때는 의복에 대한 흥미가 낮다가 3학년에 이르면 의복에 대한 흥미가 약간 높아지고, 여아의 경우 1, 2학년 때는 의복에 대한 흥미가 높다가 3학년이 되면 의복에 대한 흥미도가 낮

아져 남녀간의 차이가 적어진다고 하였다.

관리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미연(1989)은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복의 관리성도 높아진다고 하였으나 이강선(1992)은 관리성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Resell(1946), 유명이(1988), 이강선(1992)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독립심이 커지며, 의복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 의복으로 자신의 외모에 좋은 점을 강조하고 싶어하고 어울림에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립심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동조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소속성을 중요시하므로 소속감을 나타내는 정도는 연령과 관계가 있어서 6세-10세의 아동들은 동료 집단 내의 제복착용을 좋아한다. 그러나 10-11세의 아동들은 의복습관에 변화가 일어나 의복선호에 뚜렷한 성향을 보여 의복의 독자성을 주장한다. 이것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동시에 타인과 구별되려는 욕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Tate, 1967).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과는 달리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개성적인 의복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김연주, 1992).

학년에 따른 의복행동을 살펴보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의복에 대한 흥미성이 높아진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관리성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아진다는 견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동조성은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높다는 견해가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시 북구와 수성구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2개교의 3학년 아동과 6학년 아동 30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년별(성별)분포는 3학년 150명(남학생 80명, 여학생 70명), 6학년 151명(남학생 93명, 여학생 58명)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173, 여학생 128)

###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으로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검사지는 의복행동 측정 검사와 자아개념 검사로 구성되었다. 설문내용은 의복행동 측정 검사 내용으로는 Creekmore의 8가지 의복행동 하위요인중 초등학교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흥미

성, 안락성, 관리성, 동조성, 심리적 의존성의 5가지 하위 구성요인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자아개념 검사는 정원식(1975)의 표준화 자아개념검사를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측정도구에서 선택하여 3, 6학년 아동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정원식의 자아개념 검사는 5개 측면의 외적 자아준거체제와 3개 측면의 내적 자아준거체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자아, 도덕적 자아, 성격적 자아, 사회적 자아, 감정적 자아로 이루어진 5개의 외적 자아준거체제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서의 각 평가항목은 Likert식 5단계 평가척도로 작성하였다.

###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담임교사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0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2000년 12월 11일부터 15일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총 310부의 검사지를 배부하여 이중 미회수된 9부를 제외한 301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을 거쳐 SPSS/PC Window 8.0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연구 문제의 검증에 위하여 사용한 통계적 방법은 먼저, 학년별, 성별, 자아개념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thre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사용하였다. 삼원변량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차이는 t검정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학년, 성, 자아개념에 따른 의복행동의 흥미성 차이

학년, 성, 자아개념 집단별 의복행동의 흥미성 삼원변량 분석 결과는 <표 2>과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의복행동의 흥미성 요인은 학년별, 성별, 자아개념 상하집단별 주효과와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성, 자아개념 집단별 의복행동의 흥미성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통계적 유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학년에 따른 흥미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3학년 아동의 흥미성 평균은 14.68로서 6학년 아동의 평균치 12.86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99)=3.69, p<.001$ ). 따라서 3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에 비해 의복에 대한 흥미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흥미성에 있어, 12세, 9세 순으로 의복의 흥미가 높다고 한 이강선(1992)의 연구와 10-12세에 흥미성이 높다고 한 이미숙(1984)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표 2> 학년, 성, 자아개념 집단별 의복행동의 흥미성 삼원변량분석 결과

하위요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주효과				
	학년(A)	94.683	1	94.683	6.749**
	성(B)	1087.233	1	1087.233	77.500***
	자아개념(C)	247.939	1	247.939	17.674***
	상호작용효과				
흥미성	A×B	70.258	1	70.258	5.008*
	A×C	0.002	1	0.002	0.000
	B×C	1.302	1	1.302	0.93
	A×B×C	27.423		27.423	1.955
	오차	4110.425		4110.425	
	전체	62772.000	301	62772.000	

\*  $p<.05$     \*\*  $p<.01$     \*\*\*  $p<.001$

〈표 3〉 학년, 성, 자아개념 집단별 의복행동의 흥미성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요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학년	3학년	14.68	4.29	3.69***
	6학년	12.86	2.27	
성별	남	12.13	4.05	8.38***
	여	15.98	3.78	
자아개념	상집단	14.68	4.37	3.69***
	하집단	12.86	4.18	

\*\*\*p&lt;.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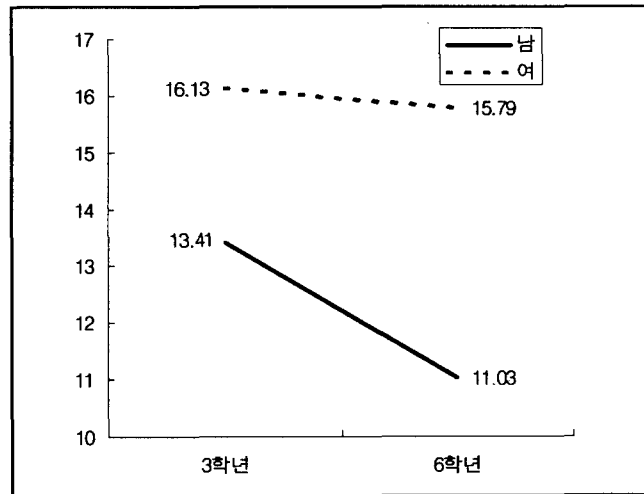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흥미성 평균이 12.13이고, 여학생의 평균이 15.98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299)=8.38, p<.001$ ). 즉,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의복의 흥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보다 여아가 흥미성이 더 높다고 한 이강선(1992), 이미연(1992), 원선주(1989), 고은기(1986)의 연구와 일치한다.

자아개념 상·하 집단에 따라서는 상위 집단의 흥미성 평균은 14.68이고 하위집단의 평균은 12.86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299)=3.69, p<.001$ ). 즉, 자아개념이 높은 아동이 자아개념이 낮은 아동에 비해 의복의 흥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일수록 흥미성이 높은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 중의 하나인 의복에 흥미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의복 흥미성은 학년과 성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는데, 이 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흥미성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흥미성이 급격히 떨어졌고, 여학생은 그 차이가 적었다. 이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업성취를 중요시하고 학습량이 늘어나고 경쟁적인 환경에 생활하게 되어 의복에 대한 관심을 가질 시간적 여유가 저학년보다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흥미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사회통



〈그림 1〉 의복 흥미성에서 학년과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



〈표 4〉 학년, 성, 자아개념 집단별 의복행동의 안락성 삼원변량분석 결과

하위요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안락성	주효과				
	학년(A)	221.622	1	221.622	23.914***
	성(B)	69.475	1	69.475	7.497**
	자아개념(C)	19.221	1	19.221	2.074
	상호작용효과				
	A×B	72.587	1	72.587	7.833**
	A×C	18.654	1	18.654	2.013
	B×C	0.067	1	0.067	0.007
	A×B×C	21.980	1	21.980	2.372
	오차	2715.309	293	2715.309	
	전체	99840.000	301	99840.000	

\*\* p&lt;.01 \*\*\*p&lt;.001

년상 학업 성취면에서 남학생에게 거는 기대가 여학생에게 거는 기대보다 더 큰 반면, 외모의 중요성은 남자가 여자보다 덜 강조되기 때문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의복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2. 학년, 성, 자아개념에 따른 의복행동의 안락성 차이

학년, 성, 자아개념 집단별 의복행동의 안락성 삼원변량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의복행동의 안락성 요인은 학년별, 성별 주효과와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성, 자아개념 집단별 의복행동의 흥미성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학년에 따른 안락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3학년 아동의 안락성 평균은 18.71로서 6학년 아동의 평균치 17.15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t(299)=4.311, p<.001]. 따라서 3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에 비해 의복에 대한 안락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운동량이나 활동량이 많은데 비해 불편함에 대한 참을성은 부족하므로 저학년 아동이 고학년 아동보다 더 편안한 옷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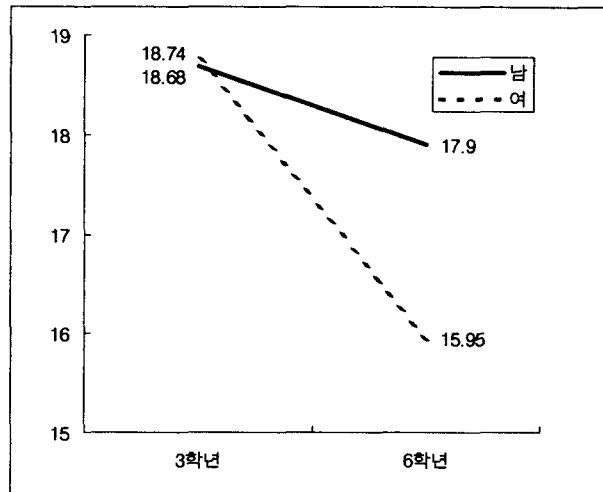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안락성 평균은 18.26이고, 여학생의 평균은 17.48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299)=2.100, p<.05]. 즉,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의복의 안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안락성이 더 높다고 한 이미연(1989), 원선주(198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자아개념 상·하 집단에 따라서는 상위 집단의 안락성 평균은 18.30이고 하위집단의 평균은 17.56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299)= 2.015, p<.05]. 즉, 자아개념이 높은 아동이 자아개념이 낮은 아동에 비해 의복의 안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

〈표 5〉 학년, 성, 자아개념 집단별 의복행동의 안락성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요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학년	3학년	18.71	2.86	4.31***
	6학년	17.15	3.37	
성별	남	18.26	2.30	2.10*
	여	17.48	3.46	
자아개념	상집단	18.30	3.22	2.02*
	하집단	17.56	3.18	

\*p&lt;.05 \*\*\*p&lt;.001



〈그림 2〉 의복 안락성에서 학년과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

복 안락성이 정적상관을 나타낸다는 심현섭(1991)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아동의 의복 안락성은 학년과 성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는데, 이 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학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안락성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고학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안락성이 훨씬 낮았다. 여학생의 경우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안락성이 급격히 낮아졌고, 남학생은 그 차이가 적었다. 이는 비교적 여성에 대한 관심이 약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저학년 때는 의복의 편안함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다 여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의복

의 편안함보다는 조금 불편해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 예쁜 옷을 선호한다 것을 보여 준다. 특히, 정신적 성장이 빠른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그 차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3. 학년, 성, 자아개념에 따른 의복행동의 관리성 차이

학년, 성, 자아개념 집단별 의복행동의 관리성 삼원변량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의복행동의 관리성 요인은 성별, 자아개념 상하집단별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학년, 성, 자아개념 집단별 의복행동의 관리성 삼원변량분석 결과

하위요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관리성	주효과				
	학년(A)	21.989	1	21.989	1.895
	성(B)	228.335	1	228.335	19.676***
	자아개념(C)	459.696	1	459.696	39.612***
	상호작용효과				
	A×B	1.048	1	1.048	0.090
	A×C	21.332	1	21.332	1.838
	B×C	2.471	1	2.471	0.213
	A×B×C	3.147		3.147	0.271
	오차	3400.220	293	3400.220	
전체	89768.000	301	89768.000		

\*\*\* p<.001

〈표 7〉 학년, 성, 자아개념 집단별 의복행동의 관리성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요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학년	3학년	17.33	3.93	2.20*
	6학년	16.40	3.47	
성별	남	16.14	3.77	4.02***
	여	17.84	3.45	
자아개념	상집단	18.13	3.51	6.22***
	하집단	15.61	3.52	

\*p&lt;.05 \*\*\*p&lt;.001

학년, 성, 자아개념 집단별 의복행동의 흥미성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학년에 따른 관리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3학년 아동의 관리성 평균은 17.33으로서 6학년 아동의 평균치 16.40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99)=2.192, p<.05$ ). 따라서 3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에 비해 의복에 대한 관리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복의 관리성도 높아진다고 한 이미연(1989)의 연구와 관리성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한 이강선(1992)의 연구와도 차이가 있다.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관리성이 높은 이유는 부모나 교사가 아동 능력에 비해 저학년에게 거는 기대치보다 고학년에게 거는 기대치가 크므로 부모나 교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고학년이 스스로 자신의 관리성 점수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성별 주요효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관리성 평균은 16.14이고, 여학생의 평균은 17.84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299)=4.022, p<.001$ )

. 즉,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의복의 관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보다 여아가 관리성이 더 높다고 한 Hurlock(1960), 박옥련(1984), 이미연(1989), 고은기(1986)의 연구와 일치한다.

자아개념 상·하 집단에 따라서는 상위 집단의 관리성 평균은 18.13이고 하위집단의 평균은 15.6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299)=6.216, p<.001$ ). 즉, 자아개념이 높은 아동이 자아개념이 낮은 아동에 비해 의복의 관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관리성이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심현섭(1991)의 연구와 일치한다.

#### 4. 학년, 성, 자아개념에 따른 의복행동의 동조성 차이

학년, 성, 자아개념 집단별 의복행동의 동조성 삼원변량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의복행동의 동조성 요인은 학년별, 성별, 자아개념 상하집단별 주요효과가 없

〈표 8〉 학년, 성, 자아개념 집단별 의복행동의 동조성 삼원변량분석 결과

하위요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동조성	주효과				
	학년(A)	4.005	1	4.005	0.227
	성(B)	7.381	1	7.381	0.419
	자아개념(C)	28.091	1	28.091	1.593
	상호작용효과				
	A×B	15.769	1	15.769	0.894
	A×C	26.986	1	26.986	1.530
	B×C	37.957	1	37.957	2.152
	A×B×C	21.011		21.011	1.191
	오차	5167.676	293	5167.676	
전체	56020.000	301	56020.000		

〈표 9〉 학년, 성, 자아개념 집단별 의복행동의 동조성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요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학년	3학년	13.20	4.63	0.89
	6학년	12.76	3.77	
성별	남	12.86	4.32	0.52
	여	13.13	4.08	
자아개념	상집단	13.33	4.51	1.47
	하집단	12.62	3.89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성, 자아개념 집단별 의복행동의 흥미성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 학년에 따른 동조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동의 동조성 평균은 13.19로서 6학년 아동의 평균치 12.76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299)=0.888, p>.05$ ).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동조성 평균은 12.87이고, 여학생의 평균은 13.13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299)=0.524, p>.05$ ).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집단의 의복에 더 동조한다는 이미연(1989)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고, 동조성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한 김연주(1992)의 연구와는 일치한다.

자아개념 상·하 집단에 따라서는 상위 집단의 동조성 평균은 13.33이고 하위집단의 평균은 12.62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

(299)=1.465,  $p>.05$ ). 이는 자아개념이 긍정적인수록 동조성이 낮아진다고 한 김연주(1992)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10년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오늘 날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사회적 분위기가 개성과 독창성을 강조하므로 아동의 동조성에는 학년이나 성별, 자아개념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5. 학년, 성, 자아개념에 따른 의복행동의 심리적 의존성 차이

학년, 성, 자아개념 집단별 의복행동의 심리적 의존성 삼원변량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의복행동의 심리적 의존성 요인은 학년별, 성별, 자아개념 상하집단별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성, 자아개념 집단별 의복행동의 심리적 의

〈표 10〉 학년, 성, 자아개념 집단별 의복행동의 심리적 의존성 삼원변량분석 결과

하위요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심리적 의존성	주효과				
	학년(A)	73.461	1	73.461	6.233*
	성(B)	181.452	1	181.452	15.397***
	자아개념(C)	257.011	1	257.011	21.808***
	상호작용효과				
	A×B	24.808	1	24.808	2.105
	A×C	2.359	1	2.359	0.200
	B×C	5.672	1	5.672	0.481
	A×B×C	2.612		2.612	0.222
	오차	3453.065		293	3453.065
전체	85020.000		301	85020.000	

\*  $p<.05$     \*\*\*  $p<.001$

〈표 11〉 학년, 성, 자아개념 집단별 의복행동의 심리적 의존성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요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학년	3학년	17.11	3.34	3.41***
	6학년	15.69	3.88	
성별	남	15.73	3.94	3.75***
	여	17.30	3.10	
자아개념	상집단	17.39	3.68	4.80***
	하집단	15.42	3.43	

\*\*\*p&lt;.001

존성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통계적 유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학년에 따른 심리적 의존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3학년 아동의 심리적 의존성 평균은 17.11로서 6학년 아동의 평균치 15.69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99)=3.411, p<.001). 따라서 3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에 비해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심리적 의존성 평균은 15.73이고, 여학생의 평균은 17.30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299)=3.747, p<.001). 즉,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심리적 의존성이 더 높다고 한 Ryan(1966), 김연주(1992)의 연구와 일치한다.

자아개념 상·하 집단에 따라서는 상위 집단의 심리적 의존성 평균은 17.39이고 하위집단의 평균은 15.42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299)=4.802, p<.001). 즉, 자아개념이 높은 아동이 자아개념이 낮은 아동에 비해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개념의 크기에 따라 심리적 의존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한

김연주(1992)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일수록 심리적 의존성이 높은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외모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의복이 외모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의복에 따라 기분이 쉽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라 본다.

#### 6.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간의 상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하위요인별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를 살펴보면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의 흥미성, 안락성, 관리성, 동조성, 의존성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의복행동 하위 요인별 상관정도를 살펴보면, 자아개념과 흥미성은 r=.237, 안락성은 r=.138, 동조성은 r=.146으로 낮은 상관도를 나타내었고, 심리적 의존성은 r=.347, 관리성은 r=.455로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의 관리성 요인이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조성의 경우 자아개념과 상관도를 보면 비록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신체적 자아(r=.122)와 사회적 자아(r=.199)에서만

〈표 12〉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간의 상관

자아개념	의복행동				
	흥미성	안락성	관리성	동조성	심리적 의존성
신체적 자아	.143*	.127*	.318**	.122*	.279**
도덕적 자아	.166**	.188**	.384**	.090	.246**
성격적 자아	.188**	.127**	.394**	.113	.276**
가정적 자아	.166**	.146*	.345**	.039	.230**
사회적 자아	.258**	-.041	.335**	.199**	.316**
총점	.237**	.138*	.455**	.146*	.347**

\*p&lt;.05 \*\* p&lt;.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어 동조성은 자아개념 하위요인 중 신체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만이 상관 있음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 론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개념과 성별 및 학년과 의복행동의 관계를 분석, 비교함으로써 아동의 의복행동 이해에 교육적인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자아개념에 따른 아동의 의복행동 차이에 대해,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일수록 의복행동의 흥미성, 안락성, 관리성, 심리적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일수록 동조성이 높긴하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아동일수록 의복에 관심을 더 가지고, 의복에 따라 기분의 쉽게 좌우되며, 의복을 잘 관리하며, 편안한 의복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 성별에 따른 아동의 의복행동의 차이에 대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흥미성, 관리성, 심리적 의존성이 높았고, 안락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그러나 동조성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긴 하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의복에 대한 관심이 적고 의복에 의해 기분이 덜 좌우되며 의복 관리력이 떨어지는 반면 편안한 옷은 더 선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 학년에 따른 아동의 의복행동의 차이에 대해,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흥미성, 안락성, 관리성, 심리적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조성에서는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높게 나타나긴 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의복에 관심을 더 가지고, 의복에 따라 기분의 쉽게 좌우되며, 의복을 잘 관리하며, 편안한 의복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라. 아동의 자아개념, 성별, 학년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의복행동의 흥미성의 경우, 저학년에 고학년에 갈수록 흥미성이 떨어지는데 남학생은 그 정도가 큰데 비해 여학생은 그 차이가 적었다.

의복행동의 안락성에서는 전체적으로 고학년이 저

학년보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저학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안락성이 약간 높았고, 고학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안락성이 훨씬 낮았다.

### 2. 제 언

본 조사 연구 과정 중 나타난 제한점과 이를 토대로 이루어질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남아 선호사상이 강한 대구지역에서 3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학년말에 조사연구 하였다. 이에 3학년말을 딱히 저학년으로 규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좀더 다양한 지역, 다양한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1~12학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직 없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3학년, 6학년 아동 모두에게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나, 1,2학년의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바, 이들 연령특성을 고려한 저학년용 문항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정원식의 자아개념 중 외적자아 준거체계(신체적 자아, 도덕적 자아, 성격적 자아, 가정적 자아, 사회적 자아)를 사용하여 연구하였는데, 국내 현실상 초등학교에서부터 학업성취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는바, 학문적 자아와 의복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본 연구 결과 동조성에서는 성별, 학년, 자아개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으나, 아동의 특성상 동조성에서도 성별, 학년, 자아개념에 따른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좀더 세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다섯째, 국내 연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복행동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reekmore의 의복행동변인을 모두 본 연구는 아직 없다. 본 연구에서도 Creekmore의 의복행동 변인 중 5가지 변인(흥미성, 안락성, 관리성, 동조성, 심리적 의존성)만을 보았다. 그러나 연구결과 안락성에서 저학년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다가 고학년에 여학생의 안락성 점수가 남학생에 비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초등학생들도 의복의 심미성을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초등학생의 의복행동중 심미성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 참 고 문 헌

- 강혜연(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 교문사.
- 고은기(1986).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화(1985). 성별, 학년별, 사회계층별 의복행동과 가정의 가치지향성과의 상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소연, 조필교(1988). 성인여성의 의복선택행동과 관련된 요인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9
- 김순구, 박정순(1990). 자아존중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5
- 김순구, 윤학자(1985).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
- 김순심외3(1995). 복식 사회 심리학. 서울 : 경춘사
- 김순화(1992). 의복 착용이 학생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주(1992). 국민학교 아동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하(1999).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원숙(1983). 의복행동과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지영(1990). 학령기 아동의 의생활 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선(1989). 의복동조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3
- 변기혜(1982).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현섭(1991). 여고생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강선(1992). 아동의 의생활 태도 조사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광진(1999). 여자고등학생들의 자아개념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1986).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
- 이미선(1979). 국민학교 의생활 학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숙(1984). 아동복의 선호디자인 특성 및 성격과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연(1989). 국민학교 1·2·3학년 아동의 의복행동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선(1981). 의복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태도와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희(1993). 초·중·고등학교 의생활 교육과정의 체계정립 및 필요도 조사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자(2000). 복식 사회 심리학. 서울 : 수학사
- 임춘봉(1978).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의상행위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선주(1989). 학령기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기숙(1984). 고교생의 의복행동과 창의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원덕(1999). 초등학생의 또래 집단 인기도와 자아개념 및 사회성숙도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순(1997). 집단 상담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변화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정훈(1973). 지각심리학. 서울 : 을류문화사.
- 최혜선(1981). 의복행동과 사회적 안정감-불안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지현(1998). 아동의 성·학년·인지양식에 따른 자아개념의 분석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reekmore, A. M. (1971). Method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al Station Project*, No.783. Michigan State University.
- Creekmore, A. M. (1980). Clothing and Personal Attractiveness of Adolescents Related to Conformity, to Clothing Mode, Peer Acceptance and Leadership Potentia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 Flugel, J. C. (1971). *The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Gesell, A., & Ilg, F. L. (1977). *The child from Five to Ten*.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 Hall, C. S., & Lindzey, G. (1970).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 Hambleton, K. B., Roach, M. E., & Ehle, A.

- K. (1972). Teenage Appearance : Conformity, Preference and Self concept, *Journal of Home Economics*.
- Horn, M. J. (1968).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co.
- Horn, M. J. (1975). *The Second Skin*, 2nd. Boston : Houghton mifflin co.
- Hurlock, E. B. (1929). *The Psychology of Dress. An Analysis of Fashion and Its Motives*. New York : Arno Press, 3rd ed.
- Hurlock, E. B. (1960). *Child Development*. New York, Mac Graw-Hill, Inc.
- Kaiser, S. B., & Phinney, J. S. (1983). Sex typing of play activities by girls clothing style : pants versus skirt. *Child Study Journal*.
- Kefgen, M., & Specht, P. T. (1976). *Individuality :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rance*. New York : Macmaillan Publishing Co.
- Kelly, E. A., & Turner, D. N. (1970). Clothing Awareness, *Journal of Home Economics*.
- Knapper, C. K. (1968).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Style of Dress, Canada*. University of Saskatchewan.
- Miller, M. S., & Ryan, M. S. (1960). Mothers & Daughters Select School dress, *Journal of Home Economics*.
- Read, K. H. (1950). Clothes Help Build Personality, *Journal of Home Economics*.
- Ryan, M. S.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Secord, R. F., & Backman, C. W. (1964). *Social Psychology*. Kogakusa : mcGraw-Hill
- Stone, G. P. (1965). *Appearance and Self를 인 용한 Roach, M. E., and Eicher, J. B., Dress and Adornment and Social Order*.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 Tate, M. T. (1967). *Family Clothing*.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 Tate, M. T., & Glisson, O. (1967). *Family Clothing*.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